



# 천주교벤투라성당

VENTURA KOREAN CATHOLIC CHURCH

SANTA BARBARA PASTORAL REGION / ARCHDIOCESE OF LOS ANGELES

본당신부 홍준기 예로니모  
평협총회장 설은규 레오날드(805-814-3886)  
주소 601 S D St. Oxnard, CA 93030  
사무실 805-253-0603  
홈페이지 venturakcc.org  
이메일 venturakcc@gmail.com

미사시간 안내		
주일	금	첫주 목 (성시간)
오전 10시	오전 9시 30분	저녁 7시 30분

## 연중 제5주일

2 0 2 6  
0 2  
0 8

### 주보

**입당송** 시편 95(94),6-7 참조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제1독서** 이사야서 58,7-10

**화답송** 시편 112(111),4-5.6-7.8 7과 9(◎ 47)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

○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제2독서** 코린토 1서 2,1-5

**복음 환호송** 요한 8,12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오 5,13-16

**영성체송** 시편 107(106),8-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 성한 곳 몸 버거운데 암 수술까지...

아내와 사별 후 자녀들 연락 끊겨, 한눈 실명 잇따른 암 진단으로 투병중  
전 재산 보증금뿐...치료비 막막해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는데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힘들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것도 모자라 두 자녀의 생사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금속 편이 밤마다 통증을 안겨주는 데다 자녀들의 안부가 궁금해 가슴이 미어집니다.”

경남 사천시의 한 임대아파트. 칠순이 넘은 김인석(안드레아)씨가 홀로 빈집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20대 시절부터 뇌전증으로 평생 약을 복용해왔고, 40대에는 고관절 질환으로 수술한 후 그때 삽입했던 핀을 제거하지 못해 지금까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저 진통제에 의존할 뿐이다. 게다가 같은 시기 잘못된 백내장 수술로 왼쪽 눈마저 실명해 거동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김씨는 10년 전 자궁암으로 고통 속에 있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 연탄 배달과 건설 일용직, 여판장 노동 등 평생 고된 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아내가 떠난 후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아들과 딸이 있으나 20년 넘게 연락이 끊겨 생사조차 모른다. 명절이 오고 찬 바람이 불 때마다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슴에 멍으로 남는다.

지독한 투병과 외로움 속에 사는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덮쳤다. 2022년 전립선암 진단을 받는데 이어 지난 12월에는 방광암까지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김씨는 현재 사천에서 양산의 대학병원까지 먼 길을 오가며 투병하고 있다. 오는 2월에 방광암 수술을 앞두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에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술비 치료비를 생각하면 벼랑 끝에 몰린 심이다.

시력 상실과 거동 불편으로 대중교통 이용조차 힘든 그를 돕는 유일한 혈육은 70대 여동생 부부다. 여동생 부부는 생업을 뒤로한 채 오빠를 차에 태워 긴 통원길을 동행하고 있다. 김씨는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동생 부부에게 짐이 되는 것이 더 미안해 눈물이 난다”고 털어냈다.

김씨는 최근 병원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다가오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수술비와 치료비를 감당해내는 것이다. 하지만 전 재산은 임대아파트 보증금 180만 원이 전부다. 치료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도 그는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마산교구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오진석(프란치스코) 회장은 김인석님은 현재의 경제·신체적 여건으로는 혼자고 통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남은 것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뿐”이라고 말했다.

미주가톨릭평화신문은 한국 내 소외된 이웃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 독자들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1월 25일에 실린 김인석 님을 후원하실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후견인: 이청준 신부(마산교구 사파동본당 주임)** “김인석 님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 앞에 서지 않도록, 생명의 끈을 놓지 않도록 따뜻한 손길과 실질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남은 삶만큼은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지원을 호소합니다.”



### ‘사랑이 피어나는 곳’ 후원안내

1. 개인 수표나 머니오더를 받습니다. Pay to: CPBC
2. 수표 받는 곳: 145-27 33rd Ave. Flushing, NY 11354
3. 메모란에 신문 날짜, 후원 대상자 기입. 예) 1월 25일 김인석

## 기도지향

### 교황님 2월 지향 기도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이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아 결코 힘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 보편지향 기도

- 미니아나 폴리스 수태고지 성당 총격참사 희생자 19명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 세상을 떠난 플레처 머켈(8), 하퍼 모이스키(10), 부상당한 어린이 14명과 성인 3명.
-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과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 알림니다

### 1. 성 프란치스코의 해 특별 희년 전대사

성 프란치스코의 선종 제 800주년을 맞이하여 교황 레오 14세 성하께서 올해를 특별 희년인 '성 프란치스코의 해'로 지내도록 제정하셨습니다.

- 희년기간 : 26년 1월 10일 - 27년 1월 10일
- 전대사 대상: 자기자신 또는 연옥영혼(신자)을 위하여
- 전대사 조건: 1) 고해성사(전후 8일 이내), 미사 참례와 영성체  
2)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교황님의 지향을 위한 기도  
3) 프란치스코회 성당이나 성지 방문  
\*꼰벤투알, 작은형제회, 카푸친 수도회의 모든 성당과 경당을 비롯해 성 프란치스코와 관련된 모든 예배 장소가 전대사 지정 순례지입니다.

### 2. 골롬바의 집 미사

- 일시 : 2월 10일(화) 14:00 • 장소: 골롬바의 집

### 3. 성시간

- 일시 : 2월 12일(목) 19:30 미사 후 (피정관계로 2월은 2주에 합니다.) • 장소 : 성전

### 4. 미션순례

- 일시 : 2월 17일(화) 09:30 - 16:00 • 장소: 산타 아그네스 미션

### 5. 재의 수요일

- 일시 : 2월 18일(수) 20:00 • 장소 : 성전

### 6. 목요일 저녁 미사 중단 및 성시간 안내

- 목요일 저녁 미사 평균 1-2명으로 참석수가 저조한 관계로 2월부터 평일 목요일 저녁미사는 없겠습니다.
- 목요일 저녁 성시간은 참석자가 평균 5명인 관계로 그대로 유지 됩니다.  
(월 1회, 첫주 목요일)

## 7. 2026년 사목주제와 기도지향

- 2026년 사목주제 『기도와 말씀』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에페 6.18)

- 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본당 공동체를 봉헌하는 기도지향

- 1) 하느님 말씀을 통한 영적성장을 위하여
- 2) 내면의 상처 치유와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극복을 위하여
- 3) 겸손으로 서로 섬김을 위하여
- 4) 성사생활 참여를 어려워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 5) 예비신자 입교와 새 신자들을 환대하기 위하여

- 매주 게시판에 구역별로 기도를 집계하여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8.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셀”(Cell) 기도 모임 안내

- 매주 금 09:30 미사 후 10:00에 “셀(Cell)” 기도 모임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9. 일회용품 절감 위한 개인 텀블러 사용

한해 종이컵 사용 비용만으로 200불이 지출이 되고 있어, 일회용품 절감이 필요하오니 개인 텀블러를 성당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 이용 바랍니다.

## 전례안내

### 전례봉사자(독서) 안내

2월 8일 연중 제5주일	2월 15일 연중 제6주일
제1독서 : 김상우 아우스딩 제2독서 : 김인선 아네스	제1독서 : 김미숙 마리안나 제2독서 : 박민정 안젤라

## 재정소식

천주교 벤투라 성당 공동체는 본당 신자들의 아낌없는 봉헌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이웃 사랑 계명과 교회법이 요청하는 대로 자선과 희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들의 정성				미사 참석/봉성체		
	교무금	헌금	기부금/기타	합계	본당	공소	합계
2월 1일	\$450	\$345 공소 \$150		\$945	32	5	37
2월 8일							
2월 15일							
2월 22일							
합계	\$450	\$395		\$945			

**교무금 현황** 한혜정(12,1,2), 김광일(2)

**1월 결산 보고** 수입 \$10,512 (도네이션 \$5,800) / 지출 \$6,619.86 / 잔액 Checking \$23,938.77 Savings \$20,483.75